

시읽기의 전통과 대중적 가능성

미래사극 '한국대표시인 100인선집'

이경호

문학평론가

2년 전쯤이었던가, 어떤 중견 평론가로부터 「한국대표시인 100인 선집」이 어느 출판사에서 기획되고 있다는 소리를 처음으로 들었을 때, 나는 그다지 대수롭게 생각하지를 않았었다. 나는 그 선집이 동시에 출판되리라는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었고, 따라서 이미 수많은 출판사에서 기획된 편집방침과 출판방침에 따라 몇 권씩 순차적으로 시집을 펴내는 패턴이 답습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또한 그런 나의 선입견은 어쩌면 시라는 장르나 시집출판 자체가 80년대에 누려왔던 호황의 국면이 시들해져 가고 있는 마당에, 전집 규모의 시집 간행이 안을 수 있는 경제적인 부담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을 출판사측에서, 그런 모험을 구태의연한 종래의 기획방식을 답습해가며 시도하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나의 선입견은 여지없이 빗나간 판단이 되어버렸고, 이제 막 새로 설립된 신생 출판사에서, 그것도 엄청난 경비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방대한 전집 규모의 시인선집을 동시에 간행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후, 「한국대표시인 100인선집」의 편집위원이기도 한 그 평론가로부터 그 전집에 수록될 어느 시인의 시선집 해설을 부탁받고 자료도 받을 겸, 도대체 어떤 출판사에서 이런 패기만만한 모험을 시도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속셈으로, 동교동에 있는 '미래사'라는 출판사의 사무실을 찾아가 보게 되었다. 이층 양옥집을 출판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곳에서, 나는 이 기획의 큰 틀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편집위원과 세부적인 실무작업을 진행해가는 출판사의 직원들 외에, 적지 않은 수의 국문과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중간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와 같이 엄청난 음모(?)가 주도면밀하게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는 현장을 목도하고 나서야, 나는 2년 여의 전집간행 준비기간과 5억 여원의 자금이 실제로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출판사의 모든 작업이 오로지 이 하나의 기획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다.

2년의 세월이 흐르자, '미래사'에서 추진해온 작업이 결실을 보게 되어 「한국대표시인 100인 선집」의 전체 분량이 100여권의 시집으로 동시에 출판이 되었다. 나에게도 우선 이 전집이 80년대의 말에 기획되어 90년대의 초반기(정확하게 말하자면 91년 말기가 되겠지

이 전집의 발간은, 80년대에

모처럼 마련된 우리시에 대한

파격적인 관심이 90년대에 이르러

경박하거나 저급한 내용을 담은

시집에 쓸리게 되는 것을 차단하면서,

김소월에서 박노해에 이르는 우리시의

바른 전통을 이해하고, 새로운 시읽기의

대중적 가능성을 고취시킬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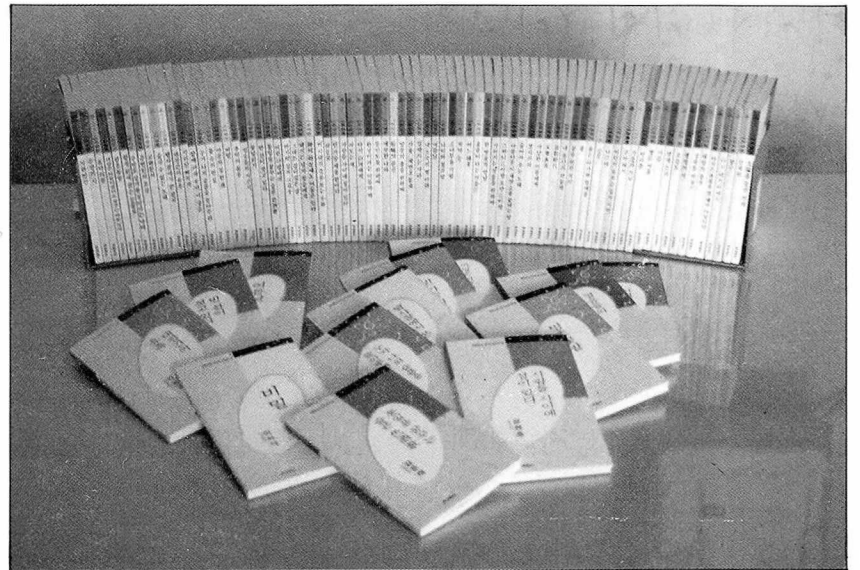
하는 물음을 꺼안고 있다.

만)에 출간되었다는 점이,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어떤 의미를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것은 말하자면 이런 엄청난 작업을 수용할 만한 대중적 반응이 90년대에 가능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90년대가 80년대 못지 않은 시의 시대가 될 수 있는가를 가능해주는 시금석의 역할을 어쩔 수 없이 이 '100인 선집'이 떠맡게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시에 대한, 그리고 출간된 시집에 대한 일반독자들의 반응이 어느 시대보다도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80년대를 구태여 시의 시대라고 규정해볼 수 있다면, 그런 시의 대중적 영향력을 확보해놓은 시인들은 대부분 80년대 들어서 시쓰기를 시작한 젊은 시인들이었다. 서정윤, 도중환, 이해인 등의 시적 흐름과 박노해로 꼽을 수 있는 또다른 젊은 시의 흐름이 그 이전까지 김소월과 윤동주 정도에 머물렀던 대중적 독자층을 잠식하고 엄청나게 확산시켜 놓았던 것이다.

전통적 서정시의 기풍을 유지하면서도 그 속에 대중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감성적인 분위기를 깔아놓은 서정윤 등의 시적 특징과, 근로현장의 생생한 현실감과 더불어 정치적 선동성을 담은 박노해의 시적 특징은 무엇보다도 시에 대한 대중독자층의 가장 상투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욕망, 즉 시란 쉽게 이해되고 그러면서도 가슴에 절실하게 와닿을 수 있는 참신한 정서나 충격적인 사실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머물지 않고, 시쓰기에 서조차 아마추어와 전문시인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데 이바지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시란 누구나 쓰고 발표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가져다준 나쁜 결과로써, 시를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시인지망생과



시의 상업성을 노린 출판업자들이 결탁하여 마구잡이로 시집을 펴내는 사례가 속출하게 되었다. 따라서 젊은 시인들에 의해 모처럼 마련된 시의 대중적 영향력은 보다 체계적이거나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되어 우리 시의 흐름을 폭넓게 이해하려는 욕망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출판매체의 일시적이고 약삭빠른 상업성에 의해 마침내는 정체도 알 수 없고 시의 제목에서부터 내용에 이르기까지 조잡하고 알팍하기 그지없는 시집들이 마구잡이로 쏟아져나와 시의 대중적 영향력을 잠식해가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한국대표시인 100인 선집」의 발간은 바로 이렇게 훼손되고 왜곡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시의 대중성을 90년대에 바로고 체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중요한 시금석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전집의 발간은 과연 80년대에 모처럼 마련된 우리 시에 대한 파격적인 관심이 90년대에 이르러 경박하거나 저급한 내용을 담은 시집에 쓸리게 되는 것을 차단하면서, 현대시가 출발한 지 한 세기를 맞게 되는 시점에서 김소월에서 박노해에 이르는 우리 시의 바른 전통을 이해하고, 새로운 시읽기의 대중적 가능성을 고취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을 꺼안고 있는 것이다.

「한국대표시인 100인 선집」의 발간 자체가 그런 물음의 의의를 꺼안는 데 있다면, 이 전집의 내용이 갖는 의의란 그런 물음에 대한 정직하고도 실제적인 답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집대성해 놓고 있는 데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이른바, 순수서정시의 모습으로 문학의 제도적인 교육을 감당해온 우리 시의 전통을 보여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른바 사

회주의적인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선동성을 미력하게나마 작품에 수용하려고 한, 그리하여 특히 50년대 이후에는 반공 이데올로기에 수렴해야 하는 제도적인 문학교육에서 소외되고 사장되어 버린 우리 시의 또다른 중요한 흐름을 '100인 선집'의 자료로 수용해놓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 후자의 특징이 이 선집을 기왕에 출간된 다른 시선집들과 구별해 주면서 출간 의의를 돋보이게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전집은 우리 시의 전통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인 개인의 연보와 시인에 대한 연구목차를 보충자료로 따로 수록해놓는 성의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전집의 의의가 시읽기의 바른 전통을 대중성이라는 기반 위에 두고 있다는 사실은, 구태여 발간취지에서 '그중에서도 우리에게 많이 읽히고 쉽게 다가서는 시인'이라는 귀절을 확인해 보지 않더라도 100여명의 목록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김초혜, 유안진, 도중환, 서정윤 등의 이름에서 쉽사리 확인해볼 수가 있다. 이런 자세는 시 자체의 논의를 대중성과 분리해 놓지 않으려는, 혹은 전집의 상업성을 겨냥한 것일 수도 있다. 어쨌든 시를 사랑하는 한 사람의 독자로서 이 전집의 발간을 목도하고 갖게 되는 바람은 100여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현대시사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정리한 학술적 성과라는 점에 대한 공감을 떠나서라도, 이런 조심스러운 대중성에 대한 배려로 말미암아 이 전집의 발간이 90년대에 다시 한번 시읽기의 바른 전통에 대하여 일반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결집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